

## GCF 임시 법무실장 임명

2017, 6.22. 송도 - 녹색기후기금 (GCF) 임시 법무실장으로 기업·금융 거래 국제 전문가 라울 에레라 (Raul Herrera) 변호사가 6월 28일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요 국제 무대에서 GCF을 대변하며 국제법 관련 내부 방향설정을 돕는다.

에레라 실장은 미국 초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 (Arnold & Porter Kaye Scholer) 파트너 변호사로 국제 법률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남미와 캐리비안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25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다.



파나마에서 태어난 에레라 실장은 민간·공공, 양자·다자기업 등 다수의 고객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민간부문 다자금융 계열사인 미주투자공사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의 법무실장이기도 하며, 캐리비안개발은행 및 중미경제통합은행을 대변하고 있다.

GCF 임시 법무실장을 맡게 되면서 사무총장과 경영을 총괄하는 이사진에게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바이넨 (Rutger de Witt Wijnen) 전 법무실장이 GCF를 떠난 데에 따른 것이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new-general-counsel-joins-green-climate-fund?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